

KASTI, 강원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I'M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3자 MOU 체결

지난 10월 19일 강원대학교에서 한국분석과학기술원은 강원대학교 오덕환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KNU ALSRI, 장철성원장)와 I'M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김대현단장)과 3개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1958년 '농업자원개발연구소'로 시작하여 2008년에 '농업과학연구소'와 '농촌개발연구소'가 통합하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정통성을 잇는 『농업생명과학연구원』으로 재탄생한 역사가 깊은 기관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1년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되어 "미래 성장농업생명산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지역거점 대학연구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2030년까지 최대 9년간 총 7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스마트농업 융복합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주제로 ▲스마트농업 융복합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 ▲신진 연구인력 육성 ▲강원특화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장철성원장은 세계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지구환경 변화 대응, 인류문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모든 인류의 젖줄인 농업생명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이라는 공동의 당면과제를 포함한 국제협력, 남북한 협력 등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원 구성원들은 농업관련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스마트팜 분야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I'M 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의 미션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팜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4개 전공(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과 23분의 교수진으로 구성하고 전공트랙을 2개(스마트팜종합관리융합전공, 스마트농업전공)로 구분하여 원천 요소기술 개발과 현장적응형 기술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3개 기관업무 협약 체결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첨단 정밀분석 전문성향상 및 확대가 기대되고, 강원대의 스마트팜연구에 더해 측정, 분석 및 경영관리 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인력양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기관은 향후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포럼,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KASTI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기술을 활용하여 강원대에 분석기본 교육,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 등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3개기관 MOU 기념 촬영 : 사진 왼쪽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박세진 교수, 남주석 교수, 오덕환 강원대농업생명과학대학장, 김대현 I'M스마트팜 혁신인재양성교육연구단장, 장철성 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 이덕희 한국분석과학기술원 부사장, 김용환 KASTI CTO, 김만구 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겸 KASTI CTO